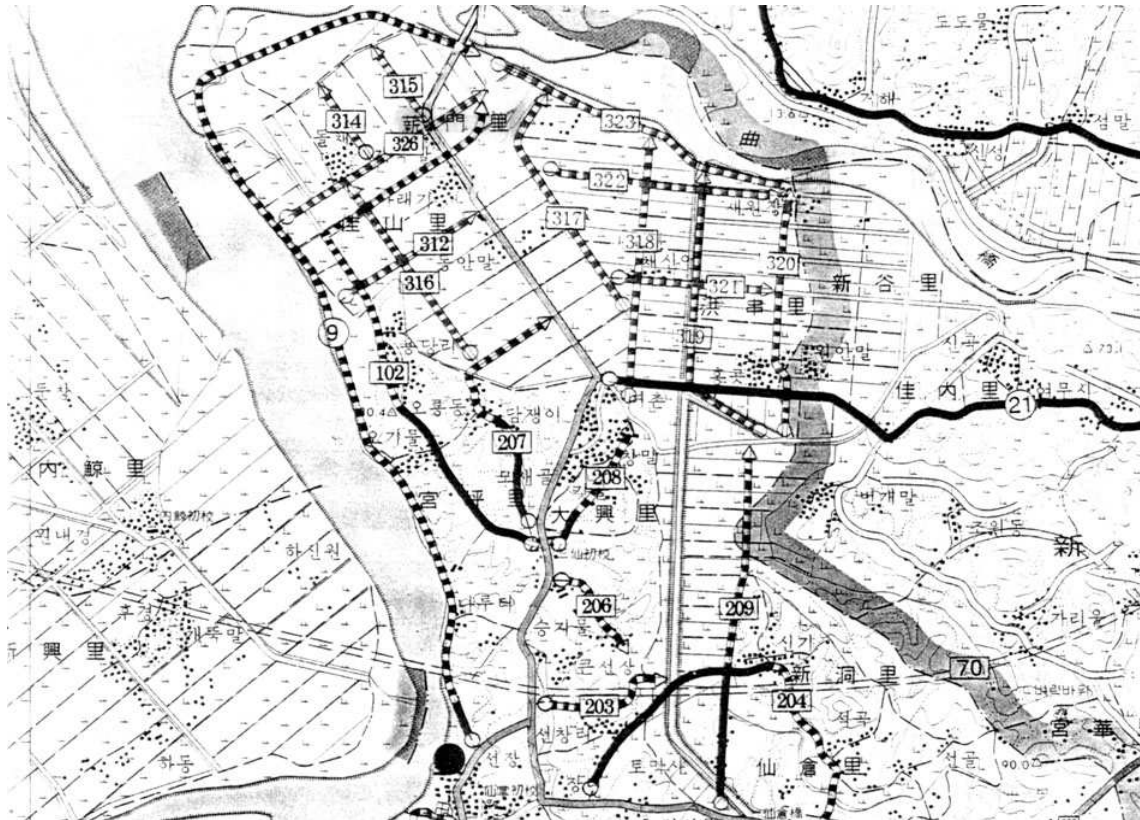


## 신문리·新門里

신문리는 선장면의 한 마을이며 풀섯(풀쑈)이 무성하여 천연적으로 마을의 문을 이루었다 해서 섬문이라고도 불리우며 마을 사람들은 "섯문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가구수는 37호이며 총인구수는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의 2/3가 갯벌이었으나 전 박정희 대통령의 경지정리에 의해 삼교천 물을 막아 비로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 농업의 형태는 거의가 논농사 위주이며 삼교천의 물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신문리 위치도>



### ☒ 돌채마을

돌채마을은 신문리 남쪽에 있는 자연부락으로 채로 그릇을 만드는 누운 버들이 많았으며 삼교천 방조제가 완공된 후 약 50여명 정도의 새로운 농토가 확장되었다. 옛 조상으로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신문리는 전설에 의하면 썰물 들물에 의하여 돌아가는 형태로 흙과 조화가 되어 조성된 마을 이라 하여 돌채라고 칭한다.

<조사당시 신문리 마을 관련사진>



#### 1) 위 치

이 마을은 위도 36-49-10, 경도 126-51-00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신문리는 선장면의 가장 끝에 위치해 삼교천과 맞닿아 있으며 인주면 대음리와도 근접해 있다. 진입 방면은 아산에서 645번 도로를 따라 선창리, 대흥리를 지나 약 3km정도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다.

#### 2) 현 황

돌채 마을은 한 마을의 큰 자연부락으로 지형적으로는 유원말과 나뉜다. 인구는 남자 68명, 여자 70명으로 총 138명이며 호구수는 37호에 이른다. 주민들 84%가 농업(논농사)에 종사하며 쌀의 생산량이 많다.

##### - 인구 분포

| 구 분<br>마을명 | 계    | 남   | 여   |
|------------|------|-----|-----|
| 돌채마을       | 138명 | 68명 | 70명 |

##### - 생업

| 구 분<br>마을명 | 계    | 농 업 | 기 타 |
|------------|------|-----|-----|
| 돌채마을       | 100% | 84% | 16% |

##### - 농경지 현황

| 구분<br>마을명 | 계    | 논    | 밭 |
|-----------|------|------|---|
| 돌채마을      | 82ha | 82ha |   |

마을의 전체 논의 면적은 82ha이며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30대, 트랙터 4대, 분무기 37대,

이앙기 15대, 콤바인 4대, 관리기 1대로 조사되었다.

- 영농기계 현황

| 구분<br>마을명 | 경운기 | 트랙터 | 이앙기 | 분무기 | 콤바인 | 관리기 |
|-----------|-----|-----|-----|-----|-----|-----|
| 돌채마을      | 30대 | 4대  | 15대 | 37대 | 4대  | 1대  |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와 마을ئم프 1개, 농악기구 8개(장고, 팽과리, 법고, 징, 북등)가 비치되어 있고. 연령은 40대와 7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15% 이씨 2%, 박씨 4%, 유씨 6%, 지씨 12%, 황씨 6%, 기타 성씨가 53%로 이루어졌다.

- 문화시설

| 구 분<br>마을명 | 마을회관 | ئم 프 | 농악기구 |
|------------|------|------|------|
| 돌채마을       | 1개소  | 1개   | 8개   |

- 연령별 분포

| 구 분<br>마을명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이상 |
|------------|------|-------|-------|-------|-------|-------|-------|-------|------|
| 돌채마을       | 7명   | 15명   | 10명   | 20명   | 25명   | 15명   | 10명   | 28명   | 8명   |

- 성씨별 분포

| 구 분<br>마을명 | 김<br>씨 | 이<br>씨 | 박<br>씨 | 유<br>씨 | 지<br>씨 | 황<br>씨 | 기<br>타 |
|------------|--------|--------|--------|--------|--------|--------|--------|
| 돌채마을       | 15%    | 2%     | 4%     | 6%     | 12%    | 6%     | 53%    |

- 학생 분포

| 구분<br>마을명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 돌채마을      | 4명   | 5명  | 7명   | 5명  |

- 최고령자

금년 91세의 박분례할머니로 조사되었다.

- 호당 평균소득

마을의 호당 평균소득은 연간약 1,200만원다.

3) 자연 경관

삽교천은 일부를 막아서 만든 간척지로 주민의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예전에 신문리에서 인주면 해암리로 갈 때 건너가는 방아개 나루터가 있어서 송어도 잡고 했으나 지금은 경지 정리로 터만 남아 있다. 광대하게 펼쳐진 논 앞으로 삽교천이 닿아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 천안군 돈의면의 가락리 일부와 신창군 대서면의 용당리를 병합하여 신문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형성년대는 약 90년정도로 박분례 할머니님이 이곳에서 3대째 살고 계셨으며 처음으로 터를 잡고 산 성씨는 지씨였으나 현재는 몇가구만 살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는 6.25전이 가장 많

왔다고 한다.

6) 지 명

·돌 채 : 신문리 남쪽에 있는 마을. 채로 그릇을 만드는 누운 버들이 많이 있었음. 삽교천 방조제가 완공되어 약 50여명 정도의 새로운 농토가 확장되었다.

·유원말 : 돌채 서쪽에 있는 마을.

·대신원 : 세원원 옆에 있는 들.

·뒤신원 : 돌채 서쪽에 있는 들.

·방앗간 : 뒤신원 남쪽에 있는 들로서 방앗간이 있었다.

·보-런 : 돌채 동쪽에 있는 들.

·성신원 : 돌채 북쪽에 있는 들.

·세원원 : 돌채 북동쪽에 있는 들.

·영신전 : 돌채 들레에 있는 들.

·웅신원 : 대신원 북쪽에 있는 들.

·방아개나루터 : 신문리에서 인주면 해암리 방아개로 건너가는 나루터 지금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다.

7) 전 설

이 마을에서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제사, 전통놀이, 계등이 있으며,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는 계모임으로서 연반계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명절(설날, 추석)때 마을 전통 모임이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10) 종교 단체

이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이마을 사람들은 근처의 마을 교회나 절 혹은 성당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는 공장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마을의 특성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하나로 평화로운 인상을 주었다. 지금의 마을회관은 99년 하반기에 재건립 되었으며 주민들 또한 부지런하고 협동이 잘 되어 마을공동작업이나 계모임 등이 매우 활발한 마을이다.